

'25. 7. 18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콜롬비아 무장단체, 3년 새 45% 급증으로 정부 '치안 위기'
 - 7.9 언론은 「구스타보 페트로」 콜롬비아 대통령이 취임한 '22년 이후 정부의 휴전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무장단체들은 마약 밀매와 불법 채굴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3년 새 45% 급증하였다고 보도
- 캐나다, 퀘벡州에서 체제 전복 기도한 무장세력 적발
 - 7.10 캐나다 기마경찰대는 퀘벡 지역의 일부를 점령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현역 군인 2명을 포함한 캐나다인 4명을 체포했으며, 이들이 반정부 민병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군사훈련과 정찰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

유 럽

- 英, 테러단체 지정 親팔레스타인 단체 지지자 70여 명 체포
 - 7.13 언론은 영국 전역에서 親팔레스타인 단체 '팔레스타인 행동'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데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70여 명이 체포됐으며, 경찰은 이들이 불법 단체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
 - ※ 언론은 영국에서 테러단체 회원이나 지지자는 최고 1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, 테러단체 깃발이나 로고를 전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부언
- 드론,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부상
 - 7.14 언론은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감시장비에서 공격무기·군수품 보급 등으로 진화하여 전술을 변화시키는 주요 전력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전선의 교착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美는 이러한 전술의 변화를 계기로 美 본토로 잠입하는 드론 공격 방어체계 구축 착수

아 테

- 국제형사재판소(ICC), 탈레반 지도자 여성박해 혐의 체포영장 발부
 - 7.9 언론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 지도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탈레반은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고 여성의 교육, 사생활 등 여성 인권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도
 - ※ 탈레반은 '96~'01년 첫 통치 때와 달리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으나,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부언
- 駐韓중국대사관, 국내 반중시위 격화에 보안 강화 당부
 - 7.10 언론은 駐韓중국대사관이 대사관 인근 반중시위가 격화되자 한국 정부에 경찰력 추가 등 보안 강화를 요청하였으며,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중집회 및 시위 가능성과 관련 조치사항을 게재하였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중국 대사관이 前 대통령 지지자의 대사관 난입 시도 외 전반적인 반중시위 관련 공적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언
- 뉴질랜드,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ATM 전면 금지 발표
 - 7.10 언론은 뉴질랜드가 테러자금조달 방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ATM을 금지하였고, 해외로 불법 자금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 송금한도를 5,000달러로 설정하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뉴질랜드 경찰이 자국의 157개의 암호화폐 ATM을 확인했으며, 암호화폐 ATM이 마약 딜러들의 주요 자금세탁 포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부언
- 韓 외교부, 세계新안보포럼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최
 - 7.14 외교부는 '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'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으며, 전문가들은 현재 안보위협이 군사·드론·사이버공격 등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
 - ※ 2025 세계新안보포럼은 '하이브리드 위협'을 주제로 9월 8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 예정

역사 속 테러사건

美, 트럼프 대통령(당시 후보) 총기 피격 사건

- '24.7.13 美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야외 유세 행사간 총격사건이 발생해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4명이 부상
 - 용의자는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의 20세 남성 「토마스 매튜 크록스」로 현장에서 비밀경호국에 의해 사살
 - FBI와 현지 경찰은 총격범의 차량과 자택에서 폭발물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나, 휴대폰과 SNS 등 조사결과 단독 범행으로 발표
 - 美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경호 체계 점검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 및 내부조사를 시작하여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
 - 美 대선기간 중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, 정치적 분극화 속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짐
- ⇒ 정치적 극단주의에 의한 단독 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주요要人 외부 활동 간 선제적 테러 및 경호 예방 활동 필요



<피격사건 현장>

테러 상식

< ‘외로운 늑대(Lone Wolf) 테러’ vs ‘늑대무리(Wolf Pack) 테러’ >

■ 외로운 늑대(Lone Wolf)

- (정의) 배후세력 없이 특정 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자생적 테러리스트
- (유래) 본래 19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라르를 기습한 체첸 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, 1990년대 중반 미국의 극우 인종주의자 엘릭스 커티스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행동을 선동하며 사용 한데서 유래

■ 늑대무리(Wolf Pack)

- (정의) 기동력을 갖춘 소수의 경무장 테러분자들이 자율적 동선으로 이동하면서 테러를 자행하는 전문테러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
- (유래) 소규모 그룹에 독립성을 부여해 자율적이고 기동력 있는 전투수행을 가능하게 했던 독일 잠수함 전술에서 유래